습지센터 설계 당선 발표 왜 늦었나

순천시, 심사 끝내고도 2개월 지나 발표…배경 놓고 각종 의혹 일어

순천시가 '순천만 국제 습지센터' 건립사업 협상 적격자 심사결과를 늑장 발표해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구나 심사를 끝내고도 당초 발표 예정일보다 2개월이나 지나서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 국제 습지센터는 순천만 생태자원의 보전과 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 모델 건립 필요성에 따라 오천동 일대 3만3천㎡ 부지에 영상자료실·전시실·세미나실 등을 갖춘 지상 3층 규모(연면적 8천300㎡)로 들어선다.

국제습지센터 사업에는 전체 예산 450여억원 가운데 정원박람회와 연계된 생태정원 조성사업비를 제외한 건축·토목·조경 등에 213억원, 전시물을 포함한 전시공사에 142억원 등 총 3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을 위한 공모에 들어갔다. 건축설계와 전시공사 등 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토록 하고 응모된 작품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키로 했다.

당선작에 선정되면 기본·실시설계 용역권 및 전시계획과 전시물 제작·설치권을 부여받는다. 9억원이 소요되는 건축설계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142억원에 달하는 전시공사는 실시설계 완료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150억원대의 공사 수주권이 달려 있다.

'제한공개경기방식'인 이번 공모에는 4개 컨소시엄이 참여했고 당선작은 지난해 12월 발표할 예정이었다. 시는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두 달여 동안 시간을 지체하다 지난 12일에서야 협상 적격자 순위를 발표했다.

사업비 355억원 가운데 150억원의 사업권이 걸린 사안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제한적인 공모에 의한 심사로 업체를 선정하고, 심사를 마치고도 늑장 발표한 것은 순천시가 스스로 공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순위 의결은 돼 있었지만 심사결과 응모작의 작품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보완할 내용이 많아 응모 업체와의 협상과 검토 시간이 필요해 발표가 늦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선작 발표 후에도 업체와 협상을 통해 수시로 수정·보완·변경 등의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선작 늑장 발표에 따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공모했던 국제정원박람회장 설계 업체 당선작은 심사 후 이틀 뒤에 곧바로 발표해 이번 공모와 대조를 보였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섬진강 매화 꽃길따라 광양으로 오세요"

내달 13~21일 매화축제

꽃축제 중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하는 '제14회 광양 매화문화축제'가 다음달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광양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매화(梅花), 삶과 문화로 다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될 이번 축제는 경연·공연·전시·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70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매화로 펼쳐진 수려함과 함께 명품 매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매화·문화·역사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화축제는 매년 80여만명이 찾아오고 있고 올해는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율산 김오천옹 추모제를 시작으로 영상개막식, 매천 황현선생 주제 창작 무용극이 열리고, 광양매실향토음식경연대회, 남해성 전국판소리경연대회,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 등이 펼쳐진다.

체험행사로는 매실음식 만들기, 매화마을 유람하기, 매실씨 새총 쏘기, 구구소한도(九九消寒圖) 그리기, 매실 천연비누 만들기, 수양공주 매화장, 매화마을 영화상영 등 매화와 관람객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시는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과 광주방면 1일 5회 임시버스, 광양읍 방면 1일 8회 시내버스, 시티투어 버스 운행 등 교통편의도 제공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건우·티엠씨 금연 인증 광양 금연기업 4곳으로

광양지역에서 전체 직원이 금연하는 '금연기업'이 4개로 늘었다.

광양시는 최근 금연에 성공한 (주)건우(대표 신윤식)와 (주)티엠씨(대표 김호석)에 금연인증서를 수여하고 회사 입구에 금연표지판 현판식을 가졌다.

광양시 보건소는 지난해부터 '사업장 금연인증제'를 도입, 시행 첫해인 2009년에 2개 사업장이 금연인증을 받은 데 이어 최근 ㈜건우, ㈜티엠씨 등 2개 기업이 사업장 금연인증을 받아 금연기업이 총 4곳으로 집계됐다.

건우와 티엠씨는 흡연을 하는 직원 각각 57명과 47명이 시보건소 이동금연 클리닉에 등록, 지속적인 금연 훈련·서비스를 받은 이후 지난 2월 이들을 포함해 건우는 전 직원 105명, 티엠은 전 직원 122명이 각각 소변검사 방식으로 니코틴 잔류검사를 통과해 금연 인증업체가 됐다.

지난해 금연인증을 받은 2곳은 ㈜포스콘(302명), ㈜케이원테크(124명) 등이다.

광양시는 "현재 사업장 금연인증제 신청을 한 기업은 총 11곳으로 이 중 4곳이 금연에 성공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사업장 금연인증제에 참여토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청수기자 choung47@

녹차밭 사잇길로… 설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대한다원을 찾아 물결치듯 펼쳐진 차밭을 감상하고 있다. 보성다원은 연간 관광객이 100만명이 넘고 있으며, 각종 CF와 영화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선상근기자 sun@

'위험한 철길횡단' 순천 연향동 아파트단지

도로·육교 설치 통학로 만든다

순천시 연향동 4개 아파트단지 입주민 1천562명의 학생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 민원(본보 2월 10일자 11면)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의 현지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시청,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현장 조정회의 결과 연향동 아파트 단지 학생들이 인근 철도를 무단횡단해 통학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도로와 육교를 만드는 합의안이 마련됐다.

순천시 연향동 호반 리젠시빌아파트 등 4개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인근 철도노선(경전선·전라선) 너머에 있는 금당중학교 등으로 통학해야 하지만, 500m 떨어진 연향육교가 멀다는 이유로 직선거리의 철도를 무단횡단하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가까운 곳에 육교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냈고, 해결이 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낸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실무조정 협의 등을 통해 공사비를 관계기관들이 분담하는 안을 마련해 도로개설은 순천시가, 육교설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는 안을 정했다.

또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013년까지의 학생안전교육과 단속은 순천교육청과 철도공사, 민원인들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이순신 광장·웅천지구 해변공원

여수 '랜드마크' 내달 첫 선

여수 '랜드마크'인 이순신 광장과 웅천지구 해변 친수공간(인공 해수욕장)이 다음달 새롭게 선보인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진남관 인근에 공사중인 이순신 광장과 웅천지구 해변친수공간이 오는 3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순신 광장은 여수 원도심권내 진남관(국보 제304호) 아래 1만3천89㎡부지에 사업비 460억원이 투입돼 조선시대 임진왜란 조형물과 바다로 향하는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육교형 전망대 등이 들어선다.

현재 지하주차장 시설공사를 마치고 광장내 각종 시설물 및 바닥재 포장, 조경 등 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 여수 웅천택지지구앞 해변에 조성되는 인공해수욕장은 폭 60m~100m, 길이 360m 규모로 택지개발지구에 선진국형 친수(親水)공간을 접목시켰다.

시는 가막만의 자연경관을 만끽하면서 관광객들이 바다에 쉽게 접근해 자연과 호흡할 수 있고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광양 컨부두 물동량 증가세

1월 17만TEU…출범 이후 가장 높아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물동량이 글로벌 금융위기속에서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15일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3월 광양항의 월평균 물동량이 11만~12만 TEU 에서 4~8월 14만 TEU, 9~12월 15~16만 TEU 로 늘어난 이후 올 1월 17만 TEU를 넘어서 광양항 컨부두 출범후 가장 높은 물동량 수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물류량 유지비결은 지난해 4월 이상조 컨부두공단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대형 컨테이너 선사유치 등을 위한 마케팅팀을 신설이 크게 한 몫했다.

현재 광양항을 통해 여수석유화학 제품원료, 광주 삼성전자 제품, 전북지역 제지공장 원료(목재), 기아자동차 수출, 각종 육류·해산물·농산물 등이 활발하게 반·출입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김청수기자 pyj4079@